

2010년 임금동향과 2011년 전망

정성미 · 강승복*

I. 2010년 임금동향 개관

1. 2010년 명목임금, 6.1% 상승

2010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781천 원으로 2009년에 비해 6.1% 상승하였다(표 1 참조).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의 임금총액은 4.9%, 정액급여는 4.5% 상승하였으며,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상승률은 각각 19.3%, 1.7%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 비해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임금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상승률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보다 더 높은 10.9%를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전체근로자의 2010년 실질임금은 전년인 2009년보다 3.0% 증가하였으나 상용직의 실질임금은 1.9% 증가에 그쳐 실질임금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나타난 2010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은 1,949천 원으로 전년대비 5.2% 상승하였다. 월평균 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한 실질임금은 2.2% 상승하였다.

*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angsb@kli.re.kr).

<표 1> 임금관련 지표 추이

(단위: 천 원/월,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고용 노동부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	-	2,561 (-)	2,640 (3.1)	2,622 (-0.7)	2,781 (6.1)
		실질임금 증가율	-	-	-	-1.5	-3.4	3.0
	상용직	임금총액	2,404 (6.6)	2,542 (5.7)	2,683 (5.6)	2,810 (3.4)	2,795 (-0.5)	2,931 (4.9)
		정액급여	1,756 (7.4)	1,874 (6.7)	1,992 (6.3)	2,154 (6.3)	2,166 (0.6)	2,264 (4.5)
		초과급여	149 (8.7)	158 (5.4)	166 (5.5)	163 (-1.1)	156 (-4.1)	186 (19.3)
		특별급여	499 (3.5)	511 (2.4)	526 (2.9)	493 (-6.2)	472 (-4.2)	480 (1.7)
		실질임금 증가율	3.8	3.4	2.9	-1.2	-3.3	1.9
비상용직	임금총액	-	-	904 (-)	855 (-5.5)	830 (-2.9)	920 (10.9)	
통계청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1,593 (3.3)	1,656 (3.9)	1,745 (5.4)	1,846 (5.8)	1,852 (0.3)	1,949 (5.2)
		실질임금 증가율	0.5	1.7	2.8	1.0	-2.4	2.2
고용 노동부	근로시간 (월)	전체 근로자	-	-	174.2 (-)	171.4 (-1.6)	172.8 (0.8)	175.9 (1.8)
		상용직	195.1 (-1.1)	191.2 (-2.0)	180.0 (-1.5)	177.8 (-1.2)	179.7 (1.1)	181.9 (1.2)
통계청	소비자물가 증가율		2.8	2.2	2.5	4.7	2.8	2.9
한국은행	GDP 증가율		1.9	2.2	3.2	2.9	3.4	6.1

주: 1)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상용직을 조사대상으로 하던 『매월노동통계조사』를 2007년도부터 전체 근로자로 확장한 것임.

2) 임금자료 중 고용노동부 자료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통계청 자료는 전체 근로자가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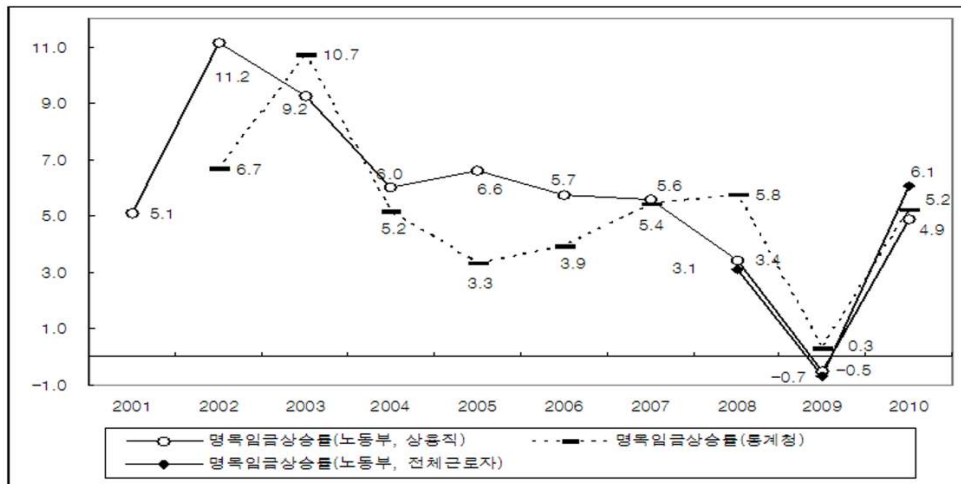
3)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년도.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주: 고용노동부 자료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년도.

2. 생산성 증가율 증가에 따라 임금상승률도 증가

2010년 상용직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2009년의 기저효과에 힘입어 4.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명목GDP를 취업자 수로 나눈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도 8.6%로 2009년 4.1%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던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세는 2010년 명목GDP 증가율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2010년 반등하였다(표 2 참조).

한편 노동부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노동생산성을 구성하는 GDP와 취업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엄밀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집계되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을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유지하다 2009년 3.9%로 소폭 둔화된 증가율을 보인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010년 6.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대체로 명목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변동 방향에 따라 조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피용자보수 증가율도 마찬가지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상승률 또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동일하게 수렴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상승률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2010년의 명목임금 또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난 점은 2011년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명목임금 상승률 및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 %)

연도	명목임금 상승률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		피용자보수 증가율	노동소득 분배율	
		명목 GDP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2000	8.0	5.4	9.9	4.3	9.8	58.1
2001	5.1	5.9	8.0	2.0	9.8	58.8
2002	11.2	7.6	10.6	2.8	9.9	58.0
2003	9.2	6.6	6.5	-0.1	9.1	59.2
2004	6.0	5.8	7.8	1.9	8.3	58.7
2005	6.6	3.3	4.6	1.3	1.9	60.7
2006	5.7	3.7	5.0	1.3	2.2	61.3
2007	5.6	6.0	7.3	1.2	3.2	61.1
2008	3.4	4.6	5.3	0.6	5.7	61.0
2009	-0.5	4.1	3.8	-0.3	3.9	60.9
2010	4.9	8.6	10.1	1.4	6.7	59.2

주: 1) 시계열 유지를 위해 명목임금 상승률은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명목GDP/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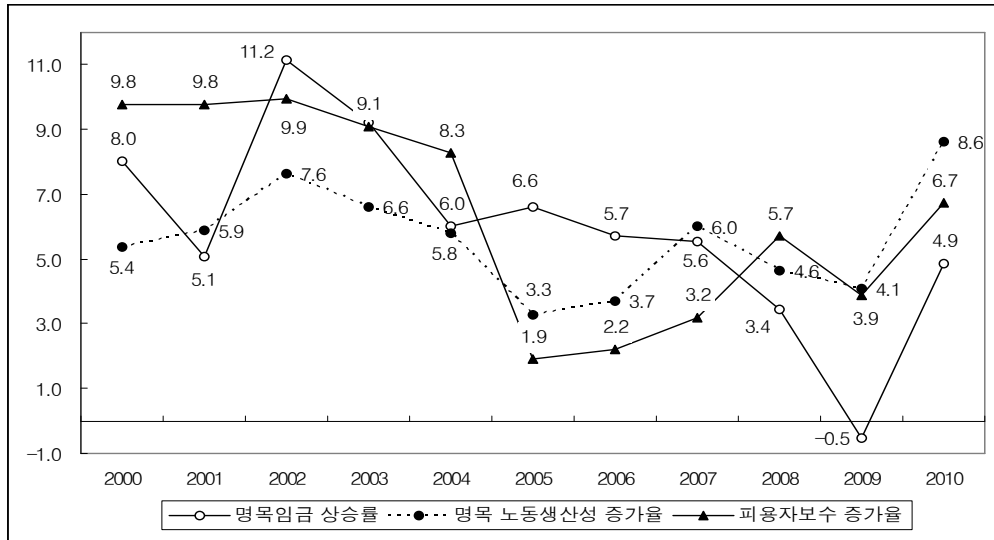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그림 2] 명목임금 상승률 · 명목노동생산성 및 피용자보수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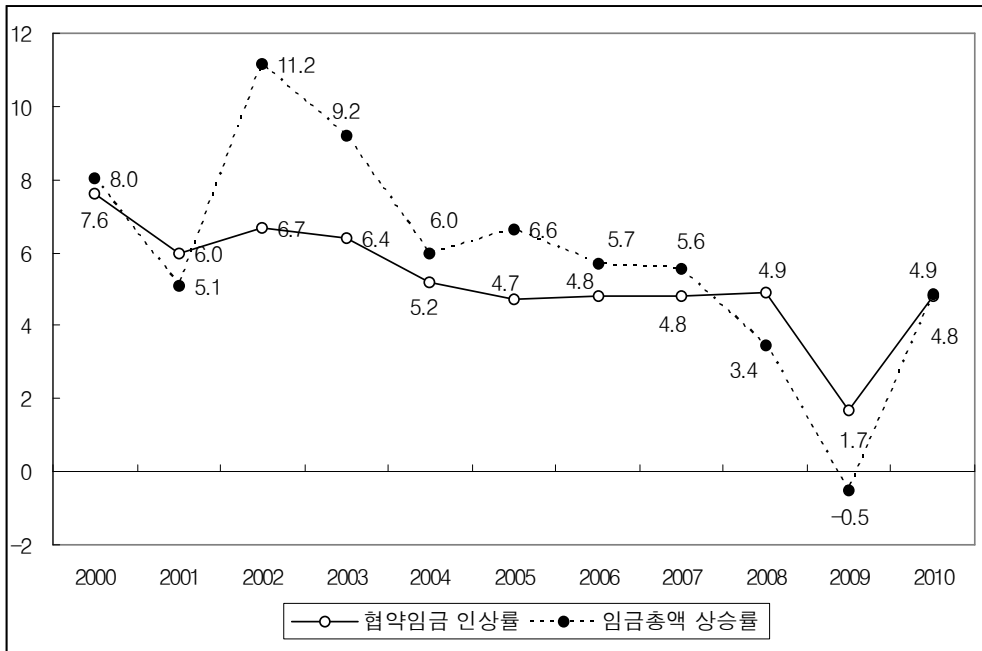
3. 2010년 노사간 협약임금 인상률 예년의 수준으로 증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임금교섭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협약임금 인상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4.8%로 나타나 전년인 2009년의 1.7%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가 제외되고 정액급여 등의 고정성 급여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조사 결과 나타난 ‘임금총액 상승률’보다 연도간 변동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2009년은 금융위기 이후 노사간 임금인상 자체의 움직임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협약임금인상률이 크게 하락하였고, 그 반등효과에 의해 2010년 협약임금 인상률이 예년의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임금총액 상승률은 5인 이상 상용직 기준임.

자료: e-나라지표, www.index.go.kr

II. 2010년 부문별 임금동향

1. 제조업을 비롯하여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크게 증가

산업별 임금상승률을 살펴보면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이 17.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13.0%, 사업서비스업이 9.5%, 금융 및 보험업이 8.5%, 제조업이 5.8%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상승률은 증가하였다. 반면 건설업은 2009년에 이어 음(-)의 임금상승률을 이어가며 -0.3%를 기록하였다.

<표 3> 산업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2007	2008	2009	2010
전 산업	2,561 (-)	2,640 (3.1)	2,622 (-0.7)	2,781 (6.1)
제조업	2,662 (-)	2,679 (0.6)	2,664 (-0.6)	2,818 (5.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872 (-)	3,953 (2.1)	3,898 (-1.4)	4,407 (13.0)
건설업	2,320 (-)	2,477 (6.8)	2,336 (-5.7)	2,329 (-0.3)
도·소매업	2,605 (-)	2,779 (6.7)	2,798 (0.7)	2,926 (4.6)
숙박 및 음식점업	1,727 (-)	1,825 (5.7)	1,820 (-0.2)	1,832 (0.7)
운수업	2,224 (-)	2,307 (3.7)	2,340 (1.4)	2,415 (3.2)
통신업	3,676 (-)	3,592 (-2.3)	3,659 (1.9)	3,843 (5.0)
금융 및 보험업	3,646 (-)	3,722 (2.1)	3,542 (-4.8)	3,844 (8.5)
부동산 및 임대업	1,713 (-)	1,858 (8.4)	1,833 (-1.3)	1,925 (5.0)
사업서비스업	2,319 (-)	2,547 (9.8)	2,506 (-1.6)	2,744 (9.5)
교육서비스업	2,716 (-)	2,733 (0.6)	2,629 (-3.8)	2,656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491 (-)	2,550 (2.4)	2,513 (-1.4)	2,700 (7.4)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	2,296 (-)	2,430 (5.8)	2,414 (-0.7)	2,825 (17.1)
기타 서비스업	2,150 (-)	2,208 (2.7)	2,206 (-0.1)	2,274 (3.1)

주: 1)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2.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상승률 증가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8.8%로 가장 높았으며, 100~299인 8.6%, 30~99인 7.4%, 10~29인 4.8%, 5~9인 3.5%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규모의 임금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83.8% 수준에 머물렀다(표 4 참조).

<표 4> 규모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300인 이상=100.0)

	2007년 평균		2008년 평균		2009년 평균		2010년 평균	
	평균	격차	평균	격차	평균	격차	평균	격차
전규모	2,561 (-)	[85.2]	2,640 (3.1)	[84.5]	2,622 (-0.7)	[86.0]	2,781 (6.1)	[83.8]
5~9인	1,813 (-)	[60.4]	1,945 (7.3)	[62.3]	1,932 (-0.6)	[63.4]	2,000 (3.5)	[60.3]
10~29인	2,109 (-)	[70.2]	2,195 (4.1)	[70.3]	2,187 (-0.4)	[71.7]	2,292 (4.8)	[69.1]
30~99인	2,310 (-)	[76.9]	2,442 (5.7)	[78.2]	2,492 (2.0)	[81.7]	2,677 (7.4)	[80.7]
100~299인	2,396 (-)	[79.8]	2,529 (5.5)	[81.0]	2,519 (-0.4)	[82.6]	2,736 (8.6)	[82.5]
300인 이상	3,004 (-)	[100.0]	3,124 (4.0)	[100.0]	3,050 (-2.4)	[100.0]	3,317 (8.8)	[100.0]

주: 1)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3. 상용·임시·일용직 모두 임금 상승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별 임금추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2010년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500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 상승하였으며,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21천 원으로 2009년 대비 4.4%, 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898천 원으로 2009년 대비 4.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표 5> 종사상 지위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상용직	임시직	격차	일용직	격차
			(상용직=100)		(상용직=100)
2000	1,527 (-)	852 (-)	55.8	646 (-)	42.3
2001	1,649 (8.0)	916 (7.5)	55.6	689 (6.7)	41.8
2002	1,769 (7.3)	971 (5.9)	54.9	760 (10.3)	43.0
2003	1,958 (10.7)	1,032 (6.4)	52.7	759 (-0.2)	38.8
2004	2,036 (4.0)	1,080 (4.6)	53.0	779 (2.6)	38.2
2005	2,117 (3.9)	1,102 (2.0)	52.1	783 (0.6)	37.0
2006	2,184 (3.2)	1,139 (3.4)	52.2	814 (4.0)	37.3
2007	2,299 (5.3)	1,163 (2.1)	50.6	823 (1.1)	35.8
2008	2,409 (4.8)	1,212 (4.2)	50.3	875 (6.3)	36.3
2009	2,419 (0.4)	1,170 (-3.5)	48.4	858 (-2.0)	35.5
2010	2,500 (3.4)	1,221 (4.4)	48.8	898 (4.7)	35.9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년도.

그렇지만 상용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의 임금수준은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4.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를 정규,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임금추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2010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294천 원으로 2009년 대비 4.2% 상승하였다. 한편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58천 원으로 2009년 대비 4.7% 상승했으나 이는 아직 2007년의 임금수준(1,276천 원)에 미치지 못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할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0년 54.8%로 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표 6> 정규비정규직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천 원/월, %)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정규직=100.0)
2002	1,456 (-)	977 (-)	67.1
2003	1,678 (15.3)	1,028 (5.3)	61.3
2004	1,771 (5.6)	1,152 (12.0)	65.0
2005	1,846 (4.2)	1,156 (0.4)	62.7
2006	1,908 (3.4)	1,198 (3.6)	62.8
2007	2,008 (5.3)	1,276 (6.5)	63.5
2008	2,127 (5.9)	1,296 (1.6)	60.9
2009	2,201 (3.5)	1,202 (-7.3)	54.6
2010	2,294 (4.2)	1,258 (4.7)	54.8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년도.

III. 2011년 임금상승률 전망

1. 2011년 경영계의 임금인상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격차 높아

이제 2011년도 노동계의 임금상승 요구율을 보면 먼저 한국노총의 경우 생계비 및 근로자간 격차해소 등을 감안하여 정규직 9.4%, 비정규직 20.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민주노총은 2011년부터 정규직의 임금요구율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대신 산별조직이 독자적으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24.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반면 경영계(경총)는 국민경제생산성, ‘국가고용률 프로젝트 1070’ 달성 등을 이유로 2011년 임금인상률을 3.5%로 제시하였다(표 7 참조).

<표 7> 경영계의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경영계(경총)	노동계		명목임금 상승률
		민주노총	한국노총	
1997	0.0	10.6	11.2	7.0
1998	-25.0	7.2	4.7	-2.5
1999	0.0	7.7	5.5	12.1
2000	5.4	15.2	13.2	8.0
2001	3.5	12.7	12.0	5.1
2002	4.1	12.5	12.3	11.2
2003	4.3	11.1	11.4	9.2
2004	3.8	10.5	10.7	6.0
2005	3.9	9.3	9.4	6.6
2006	2.6	9.1	9.6	5.7
2007	2.4	9.0	9.3	5.6
2008	2.6	8.0	9.1	3.1
2009	-	-	-	-0.7
2010	0.0	9.2	9.5	6.1
2011	3.5	-	9.4	-

- 주: 1) 1999년 경총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 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2) 2004년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3) 2005년 경총은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4) 2006년 경총은 수익성 저하 기업과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5) 2007년 경총은 대졸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 인상을 제시함.
 6) 2009년도는 '2.23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노사가 요구율 및 제시율을 발표하지 않음.
 7) 2005년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8) 2011년 민주노총은 전체 정규직 요구율을 발표하지 않고 산별조직이 독자적으로 정하게 함.
 9) 명목임금 상승률은 2007년까지는 상용직, 2008년 이후는 전체근로자 대상임.

자료: 한국경총·민주노총·한국노총 및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각년도.

노사간에 서로 요구하는 임금인상률 격차는 비록 2011년에 전년인 2010년보다 줄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약 6%포인트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2011년 임금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서 전년인 2010년의 2.8%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지난 2년간 동결되었던 공무원 보수가 2011년에는 5.1%로 인상된 점 등은 적용대상 외의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2011년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2011년 임금상승률은 5.5%로 전망

2011년 임금상승률은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하여 공무원보수의 인상, 전년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임금상승 요인으로,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하락이 임금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전년인 2010년보다 낮은 4.5%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전년에 비해 매우 높은 상승률이 전망되며(한국은행), 취업자 증가율은 경기에 영향을 받아 전년의 1.3%보다 다소 낮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노동연구원).

한편 실질GDP 전망치를 취업자 전망치로 나누어 실질 노동생산성 전망치를 계산하여 보면 2011년에는 2010년의 4.6%보다 다소 낮아진 3.3%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표 8> 주요 기관의 2010년 경제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실질)		소비자물가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2010	2011년 전망치	2010	2011년 전망치	2010	2011년 전망치
한국은행 (2010. 12)	6.1	4.5	2.9	3.5	-0.3	1.1
KDI (2010. 11)		4.2		3.2		-
LG경제연구소 (2010. 12)		4.1		3.1		-
삼성경제연구소 (2010. 12)		3.8		2.8		-
한국경제연구원 (2011. 1)		4.1		3.2		-
한국노동연구원 (2011.1)		-		-		1.2~1.3

다음으로 2011년 임금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해서 1981년 이후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임금은 장기적으로 실질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증가율,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 그리고 실업률에 의존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추정 한 후, 이를 5인 이상 규모의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전체근로자로 환산하면 2011년에 약 5.5%의 임금상승률이 전망된다.

2011년에 전망되는 임금상승률 5.5%는 비록 전년인 2010년의 6.1%보다 수치상으로는 낮게 나타나지만, 2010년의 임금상승률이 2009년의 매우 낮은(-0.7%) 상승률에 대한 통계적 반동효과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2010년보다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3.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2011년 임금인상률은 6.8%로 계산돼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엄밀하게는 경제전체의 근로소득) 상승률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여분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 증가에 조응하는 임금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우선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y = AL^\alpha K^\beta$, $\alpha + \beta = 1$)를 가정하고 이윤극대화 조건을 정리하면 식 (1)이 도출된다.

$$\frac{W}{P} = w = M P_L = \alpha \frac{y}{L} \dots\dots\dots (1)$$

여기서 W 는 명목임금, P 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며 w 는 실질임금을 의미한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은 노동의 기여분,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w = MP_L$ 의 등식이 성립하며,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산출량(실질GDP) y , 노동투입량(근로자수) L ,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α 에 의해 정의된다.

식 (1)에 자연대수(log)를 취하고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노동소득분배율 α 는 일정하다고 가정), 식 (2)와 같은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다.

$$W = \dot{y} + P - L \dots\dots\dots (2)$$

임금인상률 =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

이와 같은 산식을 통해 2011년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을 계산하여 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4.5%)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한국은행, 3.5%) 그리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1.2%)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약 6.8%의 임금상승률이 계산된다. **KLI**